

전후 일본의 황국사관 재편과 지식인*

최 종 길**

- I. 서론
- II. 패전과 역사교육의 재편
- III. 새로운 역사교과서 『나라의 발자취(くにのあゆみ)』
- IV. 이시모다 쇼의 『중세적 세계의 형성』과 황국사관 부정
- 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황국사관 비판이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국민 만들기과 어떻게 연속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전후 새롭게 제시된 기준에 의해 제작된 역사교과서가 『나라의 발자취』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여전히 황실 중심주의적인 내용과 전쟁책임을 군부에게 한정하는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황국사관 부정과 전후 변혁에 복무할 수 있는 주체형성이란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시모다는 전후의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천황중심의 지배체제가 일부 개혁되었다고 하더라도 혁신세력이 민중들에게서 고립된다면 천황제는 부활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민중에게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국민을 민족으로 치환해버렸다. 이시모다의 이러한 논리는 내셔널리즘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민 만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24764).

** 고려대 HK연구교수

기를 시도한 문부성의 교육방침과 겹치는 면이 있다.

• 주제어

황국사관, 국체, 지식인, 이시모다 쇼, 『나라의 발자취』, 『중세적 세계의 형성』

I. 서론

1945년 8월 15일,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는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은 길게는 메이지 유신 이후 침략과 전쟁으로 점철된 일본 근대사의 종결, 짧게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확대일로에 있던 전쟁을 마감하는 선언이었다. 이 시점을 계기로 근대 일본의 골간을 이루던 많은 부분이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황국사관은 대일본제국헌법,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을 총괄하는 천황의 법적 제도적 지위, 천황을 대하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정한 교육칙어, 군인칙유 등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일본의 거의 모든 국가 지배 시스템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황국사관은 명확하게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후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황국사관의 극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다. 황국사관은 전전 일본의 국가 지배 시스템을 지탱한 사상적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민 창출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토대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만들기 즉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일본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국민 창출의 과제는 패전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황국사관이 제시한 사유 방식은 전전과 전후를 통해 단절과 연속의 내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황국(皇國)’이란 용어는 초대천황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인물인 진무(神武天皇)천황에서부터 현재의 125대 천황에 이르기까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을 지칭한다. 따라서 황국사관이란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역사를 파악하려는 사상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세가와 료이치(長谷川亮一)는 이러한 상징적인 용어 사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학사의 문맥에서 이 단어(황국사관-인용자)는 보통 일본중세사 연구자인 히라이즈미 키요시(平泉澄)와 그 주변의 역사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또한 역사교육사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정 국사교과서의 역사관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국학자나 신도가 등의 역사관을 지칭하거나 『신도정통기(神道正統記)』나 『대일본사(大日本史)』 등의 역사관을 지칭하기도 하며 혹은 막연히 천황 중심적이든가 일본중심적인 역사관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즉 무엇을 ‘황국사관’이라고 정의하는가는 실은 매우 애매하다.¹⁾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하세가와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전쟁 확대과정에서 문부성이 국민을 통합하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한 황국사관이란 용어에 천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경우의 황국사관이란 “대일본제국의 ‘정사(正史)’ 또는 정통적 역사관 - 즉 국가가 ‘정통’인 것으로 인정한 역사관 - 의 문제”²⁾를 지칭한다. 하세가와에 의하면, 1940년대 전반부터 문부성이 『국사개설(国史概説)』, 『대동아사개설(大東亞史概説)』 등의 역사서에서 황국사관이란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1940년대 전반에 문부성에서 사용한 황국사관이란 용어는 국체(国体)의 본의를 철저히 체현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생명의 근원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역사와 전통에 있다는 것을 체득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국사관이란 스스로의 합리적 근거나 이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정한 ‘황국발전의 생명원리’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체득된 역사관을 의미한다.³⁾

콘노 노부유키(昆野伸幸) 역시 황국사관이란 용어가 가진 애매함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미영 등 강대국을 상대로 한

1) 長谷川亮一, 『「皇国史観」という問題』, 白澤社, 2008, 1~2쪽.

2) 앞의 책, 43쪽.

3) 앞의 책, 184쪽.

장기전을 수행하면서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전쟁에 대한 대의를 일원적인 논리에 의해 설명하기 위하여 1937년에 편찬된 『국체의 본위(國體の本義)』와 1943년에 편찬된 『국사개설』에서 제시한 용어가 황국사관이라는 사실을 논증하였다.⁴⁾

박진우는 2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연구에 주목한다. 첫째는 막연하게 황국사관의 내실이 무엇인지 명확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1940년대 전반에 진행된 ‘황국사관’의 전개는 문부성이 당시의 역사관을 통일하기 위해 제창한 시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점, 둘째는 히라이즈미를 마치 황국사관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는 종래의 통설을 부정한 점, 즉 당시 황국사관의 일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문부성 교학과와 『국사개설』의 편찬회 의원이었던 오누마 히로오(小沼洋夫)와 같은 문부성 내부의 공인된 이데올로그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점을 박진우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⁵⁾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박진우는 황국사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황국사관은 첫째로 황조신(皇祖神)의 천양무궁의 신칙(神勅)정신을 근거로 만세일계의 천황에 의한 통치를 정당화하는 역사관, 둘째로 만세일계의 천황=국체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역사관, 셋째로 팔굉일우(八紘一宇)=세계지배의 사명을 강조하여 이민족에 대한 지배와 통합을 정당화하는 역사관, 넷째로 이러한 사상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대(神代)에 기초한 신화와 역사의 일체성을 제시한다.⁶⁾ 즉 황국사관은 신화와 역사적 사실을 일체

4) 昆野伸幸, 『近代日本の国体論—<皇国史観>再考』, ぺりかん社, 2008.

5) 박진우, 「전후일본의 역사인식과 ‘황국사관’」,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255~256쪽.

6) 앞의 논문, 260쪽. 한편 나가하라 케이지(永原慶二)는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에 반대하여 1983년에 『황국사관(皇国史観)』(岩波書店)을 집필하였다. 여기서 나가하라는 황국사관의 특징을 1. 자국의 역사를 미화함, 2. 전쟁책임을 숨김, 3. 민중들의 정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서술을 억제함, 4. 역사교육의 목적을 진리학습이나 과학적 사고의 육성이라 아니라 지배집단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화에 둔 점이라고 요약한다(永原慶二, 『皇国史観』, 岩波書店, 1983).

화하여 설명하는 역사관으로 천양무궁의 신칙에 의거하여 천황 통치의 절대성과 불변성을 핵심으로 하고 나아가 일본의 세계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국민 통합과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창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선행연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황국사관의 문제를 전쟁이 심화되어 가는 시기에 불거진 것으로 결론 내린다. 따라서 전후에 이루어진 황국사관 비판 역시 많은 부분 전쟁책임의 문제와 연결된 형태로 논한다. 하세가와 역시 그의 저서 결론 부분에서 ‘역사학의 전쟁책임’이란 항목을 설정하고 “역사학 혹은 역사가의 전쟁책임이란 무거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⁸⁾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동아시아 각국과 관련된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1931년 이후의 전쟁책임으로 왜소화 시킨다. 과연 황국사관의 여러 가지 문제는 1931년부터 시작된 전쟁과의 관련성에 한정된 것일까. 메이지유신 이후에 제정된 제국헌법, 군인칙유, 교육칙어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 근대국가 일본이 의식적으로 수행한 국민/신민 만들기와는 관계 없는 것일까.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전쟁책임’론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1931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하는 15년 전쟁 동안에 일어난 강제동원, 징집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논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는 류큐 합병이나 홋카이도 편입 나아가 대만과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⁹⁾ 특히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를 비롯하여 일군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공동연구 전향』은 좌우파를

7) 앞의 논문, 263쪽.

8) 長谷川亮一, 『「皇国史観」という問題』, 321쪽.

9)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진보적 인사들이 1931년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좌파든 우파든 ‘전쟁책임’이라고 했을 때 이 용어가 포괄하고 있는 범주는 대체적으로 1931년에서 1945년 사이의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전쟁협력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좌파들이 왜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추적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 가장 철저하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을 추궁한 진보적 지식인들조차도 전쟁책임의 범위를 31-45년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전쟁협력 문제를 식민지 지배에 관한 반성적 인식으로까지 확대하지 못하였다.¹⁰⁾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황국사관의 문제가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국민 만들기와 어떻게 연속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황국사관 비판을 통해 전후의 새로운 변혁 주체로서의 국민 만들기를 지향한 진보적 역사교육이 오히려 체제비판이나 변혁의 움직임까지도 흡수해버리는 국민통합의 기제(機制)였음을 고찰한다.

II. 패전과 역사교육의 재편

1. 전후의 황국사관 비판과 국사편수원

패전과 더불어 일본의 역사학계는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전전에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학연구회(歷研)는 패전 이후 45년 11월 11일에 도야마 시케키(遠山茂樹), 다카하시 신이치(高橋 稔一) 등의 노력으로 ‘국사교육 재검토 좌담회’를 개최하여 황국사관 비판을 통한 새로운 역사운동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서 46년 1월 27일에 재건대회를 개최한 이후 3월 10일에 총회를 통해 활동개시를 선언하였다. 이후 6월 6일

10) 최종길은 전후 좌파들의 인식은 내부로 향한 시각이 강한 나머지 외부 즉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한 지역에까지 확대하여 사고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민족 담론」, 『일본학』 37집, 2013;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의 한반도 인식」, 『일본역사연구』 35집, 2012을 참조할 것.

에 기관지 『역사학연구』를 복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역사학연구회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분리에 반대하며 과학적 진리를 존중하고 인민과 학문 연구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1945년 11월 1일 교토(京都)에서 교토제국대학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조직을 추구하여 일본사연구회를 창립하였으며 46년 5월에는 기관지 『일본사연구』를 창간하였다. 46년 1월 12에는 진보적인 자연과학자, 사회학자, 인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 과학자협회’(民科)가 결성되었다. 민과는 산하에 다양한 부회를 두었는데 와타나베 요시미치(渡部義通), 이시모다 쇼(石母田正) 등이 중심이 된 역사부회는 46년 10월에 기관지 『역사평론』을 창간하였다. 창립 당시의 민과는 일본공산당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공산당의 전략 전술론이 민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52년에 민과의 서기국원이었던 이시모다 쇼는 일본공산당의 정치노선에 입각한 ‘국민적 과학의 창조’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역사연구 단체에 모인 연구자들은 출신대학, 전공, 역사를 대하는 입장 역시 마르크스주의, 근대주의, 실증주의 등 다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이란 상황 하에서 강화된 황국사관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여기에 모인 젊은 연구자들은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946년 12월 23일 일본사연구회 제1회 연례회의 좌담회에서 후지타니 토시오(藤谷俊雄)는 전전의 황국사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매우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전시 중에 횡행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2600년 설, 혹은 팔굉일우 설과 같은 것이 매우 요란스럽게 채용되어 소학교의 교과서 혹은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유행하였습니다. …… 이른바 황국사관이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극단적인 군국주의 사관 혹은 나아가 영미 타도 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과서의 기초였습니다.¹¹⁾

이처럼 전전의 황국사관을 비판한 후지타니는 보다 직접적으로 “전시 중에 ‘황국사관’이라는 괴상한 역사관이 국사교육에 강제되었다”¹²⁾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전에 일본역사의 정수이며 천황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해방의 사상적 원천이라고 하던 황국사관이 이제는 군국주의와 대외침략의 이데올로기였다고 공공연하게 부정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시작으로 전후의 역사학계는 전시 하에서 실시된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학문과 교육 분야에 거치지 않고 이러한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노우네 키요시(井上清)는 1946년 6월에 『역사학연구』 복간호에서 전전의 황국사관 주창자로 히라이즈미 키요시,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 토쿠토미 소호(徳富蘇峰)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군별관료의 확성기가 되어 국제호지의 강제를 위해 대일본 황국은 신국이라고 강조하며, 황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팔굉일우-신명을 가진다고 하여, 오로지 인민을 천황제 군벌·관료의 노예로 만들고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과학의 편린까지도 역사학에서 지워버린 가장 노골적인 범죄인”¹³⁾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황국사관 비판에 직면한 히라이즈미 키요시는 패전 직후 도쿄(東京)대학의 연구실을 비우고 자진해서 사임하였다. 1946년부터 공직과 교직에 있던 전쟁관련자들에 대한 추방이 시작되면서 황국사관 관련자들에게도 공직추방령이 적용되었다. 교토제국대학의 교수였던 니시다 나오지로(西田直二郎), 도쿄제국대학 교수 히고 카즈오(肥後和男), 이타자와 타케오(板沢武雄) 등이 추방되었다.

11) 座談, 「民衆は歴史家に何を望むか」, 『日本史研究』 第三号, 1946, 72~73쪽. 長谷川亮一, 『「皇国史観」という問題』, 20쪽에서 재인용.

12) 藤谷俊雄, 「歴史教育と歴史観」, 『日本史研究』 第五号, 1947, 54쪽. 長谷川亮一, 『「皇国史観」という問題』, 44쪽에서 재인용.

13) 井上清, 「時評」, 『歴史学研究』 第一二二号, 1946, 34쪽. 長谷川亮一, 『「皇国史観」という問題』, 21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1949년부터 점차 심화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 아래서 일본내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마침내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극히 일부의 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직 추방자들은 다시 이전의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황국사관 비판에 대한 우파 지식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전의 황국사관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전후에 새롭게 설치된 국사편수원을 통해 시작된다.

전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5년 4월 스즈키 칸따로(鈴木卷貫太郎) 내각이 출범하였다. 스즈키 내각의 문부대신이었던 오오타 코조(太田耕造)는 동년 4월 19일에 국체의 본의를 철저히 하고 국운융성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사를 편수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제국은 전쟁종결을 논의하고 있던 8월 1일에 오오타의 요구에 대한 답신을 제출하였고 이 답신에 근거하여 같은 날 각의에서 국사편수를 위한 기관 설치를 결정하였다. 공교롭게도 전전에 이루어진 이 결정은 전쟁이 종결된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에 제정되고 17일자로 공포 시행된 칙령 제476호 ‘국사편수원관제’ 및 칙령 제477호 ‘문부성관제외2칙령증개정 등’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이 법령에 의해 국사편수원이 설치되었다. 초대원장에 취임한 인물은 국수주의적 국어학자이자 일본사 전공자이며 『국체의 본의』를 집필한 야마다 요시오였다. 이노우에 키요시가 전후에 황국사관의 주창자라고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판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국사편수원은 패전 직전에 설치를 결정하고 패전 직후에 바로 설치된 기묘한 기관이었다. 더욱이 이 기관의 수장이 된 인물은 전전에 황국사관을 주창하던 학자였다. 패전이라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기묘한 국가정책의 연속이었다. 물론 이러한 아이러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사편수원의 폐지로 귀결되지만, 전전과 전후의 단절과 연속이 우연과 필연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하세가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항복이라는 사태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전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킨 듯이 보인다. 확실히 각의결정 시점에서는 아직 항복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이 시점에서 일본의 패배가 시간문제였던 것은 정부수뇌부에게는 명확했다. …… 원래 국사편수조사회의 총회는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으며 정식으로 어떠한 작업방침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바로 편수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것은 패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패전을 예견하고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국체’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러 국사편수원의 설치를 단행하였다.¹⁴⁾

즉 하세가와는 이러한 문부성의 정책결정은 패전 이후 예상되는 천황제 비판 혹은 천황제 폐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새롭게 설치된 국사편수원 총재에는 사사키 유키타다(佐佐木行忠), 원장에는 야마다 요시오, 국사편수관에는 이전부터 문부성의 국사편수원이었던 사카모토(坂本), 모리시에(森末), 코지마(小島), 후쿠오(福男), 타야마(田山)의 5명이 그대로 유입되었다. 국사편수원의 조직과 직제는 총무부, 신대(神代)에서 코우코우(光孝)천황까지를 담당한 제1 편수부, 우다(宇多)천황에서 하나조노(花園)천황까지를 담당한 제2 편수부, 고다이코(後醍醐)천황부터 코메이(孝明)천황까지를 담당한 제3 편수부, 메이지 천황을 담당한 제4편수부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사편수원의 조직구성과 담당업무만 보더라도 이 기구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역사 편찬이라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GHQ는 1945년 10월 22일에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ection, 흔히 CIE로 약칭함)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일본교육제도에 대한 관리정책’의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국사편수원장인 야마다는 11월 5일자로 사임하였으며 후임은 미정인 채로 국사편수원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이후

14) 長谷川亮一, 『「皇国史観」という問題』, 294~295쪽.

GHQ는 10월 30일에 전쟁에 협력한 교직 관련자들에 대한 교직추방령을, 12월 15일에는 국가신도를 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감독을 폐지하는 신도지령을, 12월 31일에는 수신, 역사, 지리교육 정지에 관한 건을 발령하였다. 결국 1946년 1월 25일의 각의에서 결정된 관청행정정리에 따른 문부성 관제개정에 근거하여 국가편수원은 폐지되었다. 설립 5개월 만에 국사편수원은 폐지된 것이다.

2. 역사교육의 기본 방향제시

하세가와가 지적한 것처럼 일본정부는 패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국체 비판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사편수원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역사교육의 주무관청인 문부성은 1945년 9월 15일에 「신일본건설의 교육방침」을 공표하고 “금후의 교육은 더욱더 국체의 호지에 힘쓰면서 군국적 사상 및 시책을 불식하고 평화국가 건설을”¹⁵⁾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선언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9월경에 문부성이 작성한 「국사교과서 편찬에 대하여(国史の教科書編纂について)」란 소책자이다. 카토 아키라(加藤章)는 이 소책자에서 강조된 역사교육의 목적은 새로운 일본 건설을 위해 “국사발전의 대세를 파악함과 동시에 ……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실천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화의 신중한 취급, 일본민족의 기원, 일본국가의 기원을 신비적이고 전승적인 형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과학적으로 규명할 것을 강조한”¹⁶⁾ 것이라고 한다. 즉 이 소책자는 신화적이고 비합리적인 서술방식을 부정하면서도 국체와 관련된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에게서 시작되는 일본민족의 기원, 진무천황 이후 만세일제로 이어져온 일본국가의 기원 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15) 上田薫編, 『社会科教育史資料』 1, 東京法令出版, 1974, 15쪽; 加藤章, 「社会科」의成立と「国史」の存続, 『長崎大学教育学部教育学科研究報告』 第25号, 1978, 53쪽에서 재인용.

16) 앞의 논문, 53쪽.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국사교육의 기본임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전전에 황국사관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역사교재가 체제비판이나 변혁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국체를 국민통합이나 국민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어서 문부성은 45년 9월에 제시한 「국사교육의 방침」을 시작으로 11월 17일에 「국사교육의 방침(안)」을 발표하고, 46년 2월에 『잠정초등과 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잠정역사교과서 편찬방침 대강」을 작성하였다. 「국사교육의 방침」은 국사교육의 3가지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이 방침은 GHQ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뒤에 발표되는 「국사수업지도요향에 대하여」에 계승되고 있다.

1.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관을 불식하고 사실의 왜곡과 은폐를 피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사의 발전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한다.
2. 종래와 같은 치란홍망, 정권이동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에 편중되지 않고 세계사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사회, 정치, 경제, 기술, 문화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의 구체적인 발전양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색 및 국민성을 파악한다.
3. 국제친선, 공존공영의 사실을 중시함과 동시에 외국문화의 섭취, 순화(醇化)의 흔적을 분명히 하여 각국 각 민족 문화의 상호경애와 문화의 교류, 호혜의 사실을 열거하여 세계평화의 증진 및 인류문화의 진전에 기여한다.¹⁷⁾

이처럼 문부성은 전전 역사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대부분 부정하였다. 그러나 천황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전의 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사교육의 방침」은 황실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7) 文部省, 「国史教育の方針」(1945.9),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Ⅱ)」, 『鹿兒島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第47卷, 1995, 3쪽에서 재인용.

우리 황실의 존립이 국사 전개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황실이 영예의 원천인 만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신중한 태도로 이를 취급할 것.¹⁸⁾

문부성은 “우리나라 국가사회의 발전은 황실을 중심으로 한 일대 가족 국가 형성의 과정인 사실(史實)을 명확하게 하는”¹⁹⁾ 것이라고 명시하여 전전의 국체개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즉 문부성의 새로운 역사교육 방침은 전전 역사교육의 특징인 “군국주의나 극단적인 국가주의는 배제하고, 봉건주의를 비판하며, 평화주의와 국제친선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천황중심 사관과는 별도의 틀에서 논하려는 입장”²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10월경에 카이고 토키오미(海後宗臣)가 GHQ에 의해 역사, 지리, 수신 과목에 대한 교육정지 지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3분야의 교재를 통합하여 국민생활에 기초한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는 방안을 구상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11월 1일 문부성 내에 공민교육쇄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한편 정부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 역사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은 11월 10일, 12월 1일에 ‘국사교육 재검토 좌담회’를 개최하여 국체비판과 새로운 역사교육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GHQ는 전전과 동일한 교육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GHQ는 12월 31일 수신, 역사, 지리교육 정지에 관한 건을 발령하였다. 이 지령의 제1조는 다음과 같다.

18) 文部省, 「国史教育の方針」(1945.9), 앞의 논문, 4쪽에서 재인용.

19) 文部省, 「国史教育の方針(案)」(1945.11.17), 앞의 논문, 6쪽에서 재인용.

20) 앞의 논문, 5쪽.

일본정부는 군국주의 및 극단적인 국가주의적 관념을 각종의 교과서에 철저히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이러한 관념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용하였다.²¹⁾

GHQ는 국제교육의 폐지와 천황제의 성격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천황은 다음날 1946년 1월 1일에 「신일본건설에 관한 조서」 이른바 천황의 신격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을 발표하였다.²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위에서 본 국사편수원도 폐지된 것이다.

이후 46년 3월에 내일한 미국교육사절단은 일본의 교육현실을 시찰한 이후 4월에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 보고」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GHQ의 견해와 동일한 관점에서 전전 일본의 역사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작할 역사와 지리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과 신화를 분리하고”, “보다 객관적인 견해가 교과서나 참고서에 표기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담보한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역사와 지리 교재의 편집책임은 문부성 내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일본의 유능한 학자 위원회를 설치”²³⁾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46년 5월 17일 GHQ의 민간정보교육국은 이에 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오카다 아키오(岡田章雄), 오오쿠보 토시아키(大久保利謙), 모리스에 요시아키(森末義彰)의 4명의 외부 학자와 문부성 소속의 역사학자로 구성된 일본사 교과서 편찬 기구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46년 9월 10일 전후 첫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나라의 발자취(くにのあゆみ)』가 출판되었다. 이어서 10월 19일에는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일본의 역사』와 사범학교용 『일본역사』가 출판되었다.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출판되자 GHQ는 46년 10월 12일 역사수업 재개를

21) 上田薫編, 『社会科教育史資料』 1, 東京法令出版, 1974, 11쪽.

22)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千本秀樹, 『天皇制の戦争責任と戦後責任』, 青木書店, 1990을 참고할 것.

23) 兼重宗和, 「占領下における日本史教育」, 『徳山大学論叢』第26号, 1986, 133쪽.

허가하였다. 이 허가를 근거로 문부성은 19일 「국사수업 재개에 부처(国史の授業再開に付て)」를 통달하면서 「새로운 국사교과서에 대하여(新国史教科書について)」를, 11월 9일에는 「국사수업지도요항에 대하여(国史授業指導要項について)」를 발표하였다.

「국사수업 재개에 부처」에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게 “연합국최고사령부가 허가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²⁴⁾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즉 새로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새로운 국사교과서에 대하여」에서 정한 편집 방침에 따라 편찬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여기에 명시된 새로운 편집방침은 ‘신화와 전설을 생략하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는 전체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왕후와 귀족의 역사가 아니라 인민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가 인민들과 연결되어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본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근대일본에 대해서는 전쟁과 정쟁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움직임과 연동한 산업, 경제, 문화의 역사’²⁵⁾를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용으로 작성된 수업지도 지침서인 「국사수업지도요항에 대하여」 역시 수업의 주안점을 다음의 4가지에 두고 있다.

1. 군국주의, 극단적인 국가주의, 국가신도의 선전 및 배외적 사상을 조장하는 교재를 배제할 것.
2. 공정한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역사의 발전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올바른 전통의 이해에 기여할 것.
3. 단순히 치란홍방(治亂興亡)의 흔적을 따라 정권쟁탈의 역사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생활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을 사회,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보다 분명하게 할 것.

24) 文部省次官, 「国史の授業再開に付て」(1946.10.19.), 앞의 논문, 137쪽에서 재인용.

25) 文部省, 「新国史教科書について」(1946.10.19.), 앞의 논문, 135쪽에서 재인용.

4. 독단적이고 편협한 사관에 빠지지 말며 세계사적인 입장에 서서 국제친선, 공존공영, 문화의 교류 호혜(互惠)의 역사적 사실을 들고 세계평화의 증진 및 인류문화의 진전에 기여할 것.²⁶⁾

여기에 명시된 수업의 주안점은 문부성이 「국사교육의 방침」에서 정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문부성과 GHQ의 논의를 거쳐 완성된 새로운 역사교육의 기본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전의 국제개념을 중시한 국가주의, 침략주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다수 국민의 역사, 세계의 여러 나라와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서 상호 교류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역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새로운 역사교과서 『나라의 발자취(くにのあゆみ)』

1. 『나라의 발자취(くにのあゆみ)』의 시각과 내용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후 최초로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가 1946년 9월 10일(실제로 완성된 것은 10월 중순이다)에 출간된 『나라의 발자취』이다. 『나라의 발자취』를 분석한 카쿠다 마사시(角田将士)는 전전의 마지막 국정 역사교과서인 『초등과국사』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배양하고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감득시켜 그 수행을 위해 진력하는 각오를 육성하는 것”을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면 『나라의 발자취』는 역사교육의 주안점을 “신국가(=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및 유지)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배양하는”²⁷⁾ 것에 두었다고

26) 文部省, 「国史授業指導要項について」(1946.11.9.), 앞의 논문, 138~139쪽에서 재인용.

27) 角田将士, 「戦後初期歴史教科書 『くにのあゆみ』における歴史認識形成の論理」, 『社会科教育論』 第47号, 2010, 13쪽.

설명한다. 이러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역사교과서의 특정한 서술내용이 전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카쿠다는 그러한 변화 형태를 전전 역사교과서 내용의 유지, 삭제, 수정, 추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²⁸⁾

유지란 전후의 새로운 역사교육 방침에 합치하는 인물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전과 동일하게 역사교과서에 등장시켜 유지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전의 『초등과국사』에 ‘진무천황은 신국일본의 기초를 다진 천황이다’고 서술되어 있었는데 이를 『나라의 발자취』에서는 ‘일본 최초의 천황’이라고만 서술하여 전후의 새로운 역사교육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바꾸어 교과서에 계속 등장시켜 인물 그 자체를 교과내용 속에서 유지하였다. 포츠담 선언의 유일한 조건이 천황제의 유지였으며 미국 역시 효율적으로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황제를 남겨두고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전후의 새로운 역사학 역시 초대 천황을 역사교과서 속에 유지시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삭제란 전후의 새로운 역사교육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나 내용을 완전하게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민중들의 삶이 곤궁해진 것을 알아차린 진토쿠(仁德)천황이 3년간 조세를 면제하였다는 내용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천황은 존재하지만 더 이상 천황의 은덕으로 국가가 운영된다는 이데올로기는 거부되었다. 수정이란 부적절한 서술내용을 삭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내용을 추가하며, 과다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공정하게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쇼토쿠(聖德)태자에 관한 내용 가운데 국위선양의 예로 서술

28) 4가지 유형에 입각하여 『초등과국사』와 『나라의 발자취』를 비교 서술하는 내용은 위의 카쿠다 마사시 논문에 의함. 『나라의 발자취』의 목차는 상권이 1. 일본의 여명, 2. 밝아오는 일본, 3. 헤이안경(平安京)의 시대, 4. 무가정치, 5. 카마쿠라(鎌倉)에서 무로마치(室町)로, 6. 아즈치(安土)와 모모야마(桃山), 하권이 7. 에도(江戸)막부, 8. 에도(江戸)와 오사카(大阪), 9. 막부(幕府)의 멸망, 10. 메이지유신, 11. 세계와 일본, 12. 다이쇼(大正)에서 쇼와(昭和)로이다.

된 견당사나 국사 편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정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12관제나 17조의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쇼토쿠태자를 전후의 새로운 민주적 정치구현에 참고가 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일·러일전쟁을 신국일본의 국위를 해외에까지 넓힌 전쟁으로 해석하던 것을 ‘혼란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싸운 전쟁’이라고 하여 평화회복이라는 전후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내용은 이후 진보적 역사가들에 의해 비판받는다. 추가는 전전의 역사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악정에 저항하는 민중들이 일으킨 각종의 저항들로 흔히 ‘잇기(一揆)’라고 불린 역사적 사실들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추가내용은 국민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체는 국민이며 이들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전의 역사교과서와 비교하여 위와 같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고 불명확한 서술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패전, 천황제의 유지, 새로운 헌법제정, 곧이어 예상되는 동경재판, 전후처리, 인접국과의 관계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만주사변 이후의 전쟁에 관한 기술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만주사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동군의 만주철도 폭파사건에 대하여 『나라의 발자취』는 ‘남만주 철도가 갑자기(不意に) 폭파되었습니다’라고만 기술하여 폭파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관동군이 철도를 폭파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애매하게 처리하였다. 중일전쟁의 시작에 대해서도 ‘갑자기 중일 양군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로만 기술하여 당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던 중국내 항일운동의 흐름과 만주사변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악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만주사변이 왜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라의 발자취』는 애매하게 서술하고 있다. 『나라의 발자취』는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독일, 이태리와 삼국동맹을 맺게된 당시의 국제정세나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삼국동맹으로 인하여

미영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수상이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에서 호전론자인 도조 히데키(東条英樹)로 바뀌어 미국과의 교섭이 원만하게 진척되지 못해서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형태는 전쟁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즉 『나라의 발자취』는 ‘우리나라는 패배하였습니다. 국민은 긴 전쟁에서 매우 고생하였습니다. 군부가 국민을 억압하여 무리한 전쟁을 한 것이 이러한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로 서술하여 군부가 민의를 억제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적시하여 전쟁책임을 전적으로 군부에 떠넘기고 있다.²⁹⁾

앞에서도 본 것처럼 전후 역사교육의 기본 방침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실천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교과서가 『나라의 발자취』였다. 『나라의 발자취』가 아무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술형태는 역사적 사실의 전후 관계 혹은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회피하거나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서술로 인하여 천황이 전쟁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었는지, 일본의 전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은 사상(捨象)되어버린다. 『나라의 발자취』 편집 책임자인 마루야마 쿠니오(丸山国雄)는 “국체는 우리나라 역사의 소산이다. …… 국가에 일관되고 있는 정신의 진수를 서술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실상을 해명하는 곳에 그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항실중심주의가 천하통일의 기조가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노부나가(信長)·히데요시(秀吉)의 위업도 이러한 풍조와 서로 관련지어서 특별히 서술해야만 한다”³⁰⁾고 구상하였다.

29) 大久保佑香里, 「1946-55年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戦争の認識と記述」, 『三田学会雑誌』 108卷1号, 2015, 155~157쪽.

30) 丸山国雄, 『新国史の教育-くにのあゆみについて-』, 惇信堂, 1947년 9월, 74~234쪽,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Ⅲ)」, 『鹿児島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第49卷, 1997, 7~8쪽에서 재인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부성과 GHQ의 논의를 거쳐 완성된 역사교육의 기본방향에는 천황제와 관련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제작된 『나라의 발자취』에는 전후 문부성이 구상하고 있던 천황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후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전후라는 “국가체제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가서사를 창출”³¹⁾하는 국가 지향적 역사였다. 이를 위해 전후의 역사교과서가 취한 역사학습 방법은 전전과 동일하게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에 의한 교화(教化)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현재사회를 고대에서 면면히 이어진 역사적 연속성 위에서 구성된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³²⁾ 인식시킨다. 이러한 교육법은 ‘현재의 사회’ 즉 전후 일본이라는 국가를 국민통합의 구심체로 받아들이는 역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나라의 발자취(くにのあゆみ)』에 대한 비판

우메노 마사노부(梅野正信)는 패전 직후 새로운 학제와 교육방침을 염두에 두고 전개된 새로운 역사교과서 편찬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4개로 정리하였다.³³⁾ 그는 패전 직후 문부성 중심의 잠정적인 초등학교 국사교과서의 편찬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국가지향’형 역사교육, 45년 6월 이후 『나라의 발자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특징을 ‘사실지향’형 역사교육, 45년 9월 이후 즉 『나라의 발자취』가 발간된 이후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비판의 특징을 ‘변혁지향’형 역사교육, 민속학적 입장에서 제기된 비판의 특징을 ‘생활지향’형 역사교육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전후의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국가건설과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문부성은 ‘국가지향’의 역사교과서를 작성하려고

31) 角田将士, 「戦後初期歴史教科書『くにのあゆみ』における歴史認識形成の論理」, 19쪽.

32) 앞의 논문, 19쪽.

33)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Ⅱ)」, 1~2쪽.

하였으며, GHQ에 의해 외부 전문가로 초빙되어 새로운 역사교과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에나가 사부로 등의 학자들은 전전의 역사교과서가 국체와 황실 중심으로 서술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신화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가능한 한 가치중립적인 형태로 사실위주의 역사교과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나라의 발자취』의 역사관이 과학적, 객관적, 민주중시, 세계와의 관련성, 사회문화적 요소를 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대사 분야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인 진무천황을 일본의 초대천황이라고 서술하는 등 여전히 황실중심주의적인 내용이 존재했으며 전쟁책임을 군부에게 한정하거나 사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던 점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진보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발자취』에 대한 비판³⁴⁾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변혁지향과 생활지향의 역사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입각한 운동이 민과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국민적 역사학운동이다.

전후 역사학계에서 가장 왕성할 활동을 전개한 진보적 역사학자들의 황국사관 비판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전 역사교육에서 황국사관이 담당하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후의 변혁 혹은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역사교육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시작은 와타나베 요시미치(渡辺義通), 이시모다 쇼, 하야시 모토이(林基)의 3사람이 45년 10월 22일에 GHQ의 노만과 에머슨을 방문하여 히라이즈미, 츠치 겐노스케(辻善之助), 이타자와 타케오(板沢武雄), 니시다 나오히로(西田直二郎)는 전전에 황국사관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국가주의적 역사해석의 주도자라고 고발하면서 자신들은 천황을 신으로 서술한 역사와 이러한 천황이 지배하는 정치제도

34) 흔히 『나라의 발자취』 비판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판은 좌담회, 논평, 논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井上清, 『くにのあゆみ批判』, 解放社, 1947; 海後宗臣, 『歴史教育の歴史』, 東京大学出版会, 1969; 加藤章, 『講座歴史教育』, 弘文社, 1982; 片上宗二, 『日本社会科成立史研究』, 風間書房, 1993; 梅野正信, 『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研究』, 日本図書センター, 2004 등이 있다.

를 찬양하는 국가주의적 역사해석을 비판하는 새로운 역사서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한 것이다.³⁵⁾ 이어서 이들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1945년 11월 10일과 12월 1일 2회에 걸쳐서 ‘국사교육 재검토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11월 10일 좌담회에서 ‘민족 전체의 즉 인민대중을 위한 역사교육이여야만 한다. 지금까지 역사교육이 얼마나 봉건적 국가주의적 지배의 지주가 되었던가를 생각하면 이른바 역사적 상식의 철저한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으며, 12월 1일 좌담회에서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시대구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과 ‘교과서의 첫 1항이 신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오류인 점, 그리고 ‘세계사적 시점에서 인류학·고고학의 성과에서 출발하고 고대인의 생활도 생생하게 묘사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³⁶⁾

먼저 황국사관이 담당하고 있던 이데올로기 비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노우에 키요시는 앞의 각주 13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 국가주의 역사학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전쟁 중에 히라이즈미 밑에서 도쿄대학교수 또는 조교수로서 ‘천양무궁 사관’을 주창하고 신국주의를 선전하며 ‘천양무궁의 생명관’이 일본 민족의 사생관이라고 칭하여 일본의 청년학생이 군벌의 죽창주의·특공

-
- 35)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Ⅲ)」, 12쪽.
 36) 앞의 논문, 11쪽. 실증주의 사학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마르크스 역사학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민간 학자로 『나라의 발자취』 제작에 참가한 이에나가 사부로는 “비정치적인 실증주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집필하면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家永三郎, 「戦後の歴史教育」, 『日本歴史』 別巻1, 岩波書店, 1963, 320쪽, 加藤章, 「社会科」の成立と「国史」の存続, 57쪽에서 재인용)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천황의 칭호에 대해서 “진무(神武)라는 것은 헤이안 시대에 부여된 시호(諡號)로 중국풍이며 오히려 고대 일본풍의 천황칭호를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며, 자신들을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의 대표격이기도 한 하니 고로(羽仁五郎)의 업적에 대해 “하니씨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너무 농후하게 표출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한다”(家永三郎, 『くこのあゆみ』理解のために, 『日本読書新聞』 369号, 1946,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Ⅲ)」, 6쪽에서 재인용)고 반론하였다.

주의 전술-이것을 만약 전술이라고 한다면-의 희생양이 되도록 선동하였다.³⁷⁾

이노우에는 황국사관 비판과 동일한 시각에서 『나라의 발자취』에 대한 비판을 어어간다. 그는 구체적인 서술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의 발자취』는 진무천황이 언제 즉위했는지, 야마토(大和)조정이 언제 전국을 지배했는지, 고분이 언제쯤의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전혀 시대를 표기하지 않았다. 시대를 표기하면 기원절이나 2600년이란 거짓말이 바로 들통 나기 때문이다.

‘호태왕(好太王)의 비’ 등을 언급하여 이를 근거로 신공황후 삼한 정벌이란 학문적으로는 완전히 부정된 거짓에 입각하여 맹렬하게 군벌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에미시(蝦夷)를 식민지로 지배했다고 한 것은 이른바 ‘동화’로 이것은 전전 조선이나 타이완을 ‘동화’시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무사가 ‘국민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파쇼적인 ‘지도자’ 원리이다.

(청일전쟁 시기에-인용자) 일본자본주의는 이미 외국을 식민지로 탈취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쟁으로 국내의 불안을 밖으로 돌리는 것은 메이지 정부 성립 직후부터 존재한 정한론의 실현이다.³⁸⁾

그리고 토마 세타(藤間生大)는 이노우에 기요시, 하니 고로 등과 함께

37) 井上清, 「時評」, 『歴史学研究』 一二二号, 1946, 34~40쪽.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Ⅲ)」, 12쪽에서 재인용.

38) 井上清, 『くにのあゆみ批判』, 解放社, 1947,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Ⅲ)」, 14~15쪽에서 재인용.

한 좌담회에서 『나라의 발자취』에 나타난 일본 근대의 시작은 메이지 천황의 5개조 서문이며 그 마지막은 46년 1월에 쇼와천황이 발표한 인간선언으로 “천황으로 근대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천황중심주의의 대단한 표현이”³⁹⁾라고 하면서 전후의 역사교과서에 천황주의가 계속 등장하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나라의 발자취』 비판에는 이러한 천황주의를 변혁하기 위한 주장도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이노우에는 46년 8월 『세계(世界)』에 발표한 「역사교육에 대하여(歴史教育について)」에서 “역사적 필연성을 가장 잘 예견하고 그 학문적 전망에서 서서 혁명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무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혁명의 불 속에서 태어나고 그 역사해석, 역사적 전망의 정당함 때문에 혁명의 시련을 견디고 최근 백년간의 세계사적 발전 그 자체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이론에 기초한”⁴⁰⁾ 역사교육이야말로 전후 일본이 지향해야 할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일하게 후지타니(藤谷俊雄) 역시 “역사교육의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역사관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입장에 선 역사관이 아니었다면 안 된다”⁴¹⁾고 강조하였다. 역사교육자 후지타니 토시오(藤谷俊雄)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사관 일하는 인민이 생활을 일구고 펼쳐 일어나자 지배자가 그것을 억압해서 대립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는 그 대립물인 무산계급이 펼쳐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본질이 폭로”⁴²⁾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황국사관 비판을 통한 전후 변혁 구상이 잘 나타나 있다.

39) 座談会, 「くにほあゆみの検討」, 『朝日評論』 2-3, 1947, 50~63쪽, 앞의 논문, 16쪽에서 재인용.

40) 井上清, 「歴史教育について」, 『世界』, 1946년 8월, 71~74쪽, 앞의 논문, 13쪽에서 재인용.

41) 藤谷俊雄, 「歴史教育と歴史観」, 『日本史研究』 5, 1947, 5쪽, 앞의 논문, 13쪽에서 재인용.

42) 藤谷俊雄, 「歴史教科書への提案」, 『あかるい教育』 9号, 民主主義教育協会, 1948, 17~18쪽, 앞의 논문, 13쪽에서 재인용.

IV. 이시모다 쇼의 『중세적 세계의 형성』과 황국사관 부정

앞에서 본 것처럼 전후 역사학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나라의 발자취』 비판은 황국사관 비판과 전후 변혁에 복무할 수 있는 주체형성이 가능한 역사학 확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역사학자 중 한명이 이시모다 쇼이다. 먼저 그의 대표작인 『중세적 세계의 형성(中世的世界の形成)』을 개괄하자.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⁴³⁾ 『중세적 세계의 형성』은 이가국(伊賀国)에 있던 쿠로다장원(黒田莊)을 무대로 고대의 종언과 중세의 시작이라는 역사의 필연을 묘사한 작품이다. 무대가 된 쿠로다장원은 고대의 상징인 동대사(東大寺)의 직할령이며 중세의 주역인 쿠로다 악당(悪党)을 시작으로 하는 재지(在地)무사단이 동대사에 저항한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물론 이것은 고대의 상징인 동대사의 지배가 흔들리는 모습을 연구함으로써 천황제국가가 붕괴하는 ‘역사의 필연’을 묘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필연이라고 전제된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구체제에 도전한 무사단은 모두 동대사에 패하였으며 동대사가 내부의 부패로 약화된 시기에 동대사와 싸운 쿠로다 악당 역시 결국은 진압당하여 패하였다. 그렇다면 역사의 진보를 체현하고 있던 새로운 신흥세력인 쿠로다 악당은 왜 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시모다는 그 원인을 악당들의 고립에서 찾는다. 동대사 지배의 말단을 담당한 신인(神人)은 유력자에 대해서는 추종겁나(追従怯懦), 백성에 대해서는 맹악(猛惡)한 인간으로 중세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었다. 악당들은 이러한 신인들을 살상하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은 무목적적인 테러나 복수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악당들은 지역의 장민(庄民)들도 약탈하였다. 이른바 악당은 민중들에게서 고립되어 전혀 지지받지

43)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新曜社, 2002, 309~310쪽.

못하는 폭력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시모다에 의하면 이러한 악당의 윤리적 피폐는 그들이 장민에게서 고립되어 있던 현실에서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악당이 촌락민 전체의 생활을 대표하는 건전한 지방무사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사찰에 대적했다면, 그것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지방의 주민들과 협력한 민중반란(土一揆)적 형태를 취할 것이며 따라서 도덕적 피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장민들의 의식도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였다. 당시에 이미 고대적인 장원지배는 해체과정에 있었으며 쿠로다장원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중세적인 무가지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민들은 외부에서 무사단이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동대사에 지배를 강화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시모다는 이러한 외부 세력에 대한 공포감이야말로 다년간 외부세계와 격리된 동대사의 지배에 익숙해진 쿠로다 장민들의 근본적인 약점이었으며 그들이 결코 스스로의 힘만으로 동대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동대사는 무력뿐만 아니라 종교를 활용하여 장민의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다. 악당들조차도 사노(寺奴)의 후손이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무력으로 진압되면 의외로 바로 충실한 장민으로 회귀해버리는 나약함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쿠로다장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중세로 나아가지 못했다. 15세기가 되어서도 쿠로다장원은 동대사의 영지였다. 이시모다는 고대세계는 외부의 정복이 없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우리들은 이제 차질(蹉跎)과 패배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이시모다가 『중세적 세계의 형성』에서 주장한 개략적 내용이다.

이시모다는 1912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이른바 전전 세대이다. 그는 도쿄제국대학 서양철학과에 입학하였다가 국사학과로 전과한 뒤 1937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학생시절에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된 이후 현장 활동이 어려워지자 역사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아사히신문 기사를 거쳐 1947년에 호세(法政)대학 법학부에 자리를 잡

아 학자로서 활동하였다. 그의 처녀작이자 대표작인 『중세적 세계의 형성』은 1944년에 탈고한 전전의 연구 성과이나 전후 1946년 3월이 되어서야 발표할 수 있었다. 이시모다는 패전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주로 일본공산당의 주류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민주주의 과학자협회 역사부회를 중심으로 전개한 국민적 역사학 운동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다.

전쟁이 심화되면서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전쟁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국가의 전향정책은 집요하게 전개되었으나 이시모다는 이 시기의 다른 마르크스주의자와는 달리 전쟁에 협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역시 전쟁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이른바 전중세대 즉 1945년에 20대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전중세대는 국가의 사상탄압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전혀 기능하지 못할 때 오로지 황국사상만을 주입받은 세대였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정책에 협력한 패배감은 고사하고 전쟁 그 자체에 대해 의심조차 가지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회자된다. 따라서 전후 이시모다를 위시한 진보적 역사학자들의 출발점은 서로가 고립되어 전쟁을 정당화한 논리인 황국사관을 비판하지 못한 일본인들을 주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새로운 일본인들이 주체가 되어 전후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방법을 채용한 이시모다는 사회구성체의 이행 문제를 주제로 삼아 고대적 세계=천황이 지배하는 세계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묘사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주체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즉 이시모다는 황국사관 비판을 통한 변혁주체 형성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그가 밝힌 연구의 목적은 “장원의 발전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적 현상을 서술하”여 “일본역사의 큰 흐름의 전체상을 파악”⁴⁴⁾하는

44) 石母田正, 「初版序」(1944년 10월), 『中世的世界の形成』 제16판, 東京大学出版会, 1984.

것이였다. 이시모다는 일본역사 속에서 중세로의 이행이 가진 의미를 고대시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이미 고착화 되어 있던 “전제정치(despotism)라는” “고대적 국가를 타파한 것”⁴⁵⁾이라고 한다. 이시모다는 “고대적인 부패한 국가기구를 거의 완전하게 극복”한 것이야말로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국민적 에너지의 원천”⁴⁶⁾이 되었으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게 된 배경이기도 하였다고 인식한다. 이시모다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재건된 일본적 고대세계 즉 천황이 중심이 된 전제국가 체제의 타파야말로 전후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추동한 주체는 누구일까. 고대 로마의 도시 생활자가 중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지 못한 것처럼 일본의 고대 도시 생활자인 귀족이나 천황가 역시 일본의 중세를 개척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이시모다가 주장하는 일본의 중세적 세계를 형성한 주체는 일본 농촌사회의 내부에서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농촌의 지주계급에 속하는 무사들이었다.⁴⁷⁾ 그리고 이들 변혁의 주체인 무사들은 장민들과 괴리되면서 고대적 지배질서를 대표하는 동대사에게 패하였다고 이시모다는 인식한 것이다.⁴⁸⁾ 따라서 그는 결론에서 “쿠로다 악당은 결코 동대사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 쿠로다 악당은 수호(守護)의 무력에 패배한 것이 아니다. …… 지방 무사들이 악당임을 포기하고 장민들이 스스

45) 앞의 책, 366쪽.

46) 앞의 책, 366쪽.

47) 앞의 책, 367~373쪽.

48) 이러한 이시모다의 의견에 대해 다케우치 리조(竹内理三)는 ‘쿠로다 장민들이 동대사에 감사하며 연공을 운상하겠다고 청원한 것을 과연 장민들의 패배라고 볼 수 있을까. 이들이 부담해야하는 연공은 겨우 50석이며 이것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매우 적다. 그리고 장민들이 청소권(請所權)을 획득한 것은 일보 전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시모다는 “인민들의 투쟁은 결국 패한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으며 패배의 방식도 서로 다르다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자기 비판적 인식을 표명하였다(앞의 책, 「はしがき」, 1957년 9월).

로 사가(寺家)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토민(土民)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고대는 계속해서 반복된다”⁴⁹⁾고 맺는다. 즉 이시모다는 스스로 변혁의 주체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변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에는 전후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연합군의 지배라는 “외부의 정복에 의해 일본의 지배체제가 일시적으로 개혁되었다고 하더라도 혁신세력이 민중들에게서 고립되어 있다면 천황제는 계속해서 부활한다”⁵⁰⁾는 이시모다의 현실인식이 존재한다. 이시모다는 민중에게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민과의 역사부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역사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변혁의 토대로 ‘역사와 민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당시 일본공산당에 결집되어 있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GHQ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의 주요모순 즉 변혁을 위한 1차적 과제를 민족해방으로 규정한 것과 깊이 관련된다. 당시 일본공산당이 제출한 ‘민족해방 민주혁명론’은 미국의 지배 하에서 해방되기 위한 민족해방의 과제가 전전의 비민주적 요소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적 과제보다 우선한다는 전략 전술론이었으며 이것은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던 소련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민족해방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였으며, 개개의 인간을 민족으로 묶는 공통분모를 역사라고 정의하였다. 이시모다는 상층 지배계급을 제외하고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민 일반을 동일한 역사적 기억을 갖는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 집단인 민족으로 치환해버렸다.⁵¹⁾ 이시모다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내셔널리즘에 기초하여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국민 만들기를 시도한 문부성의 역사교육 방침과 겹치는 측면을 가진다. 이러한 역사교육을 받은 전후 세대는 결국 변혁의

49) 앞의 책, 294쪽.

50)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313쪽.

51)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길,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민족 담론」을 참고할 것.

주체가 되기보다는 체제 내부로 흡수되어 버린다.

V. 결 론

황국사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황국사관의 문제를 전쟁이 심화되어 가는 시기에 불거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후에 이루어진 황국사관 비판 역시 많은 부분 전쟁책임 문제와 연결된 형태로 논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인식은 동아시아 각국과 관련된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1931년 이후의 전쟁책임으로 왜소화 시킨다. 과연 황국사관의 여러 가지 문제는 1931년부터 시작된 전쟁과의 관련성에 한정된 것일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정된 제국헌법, 군인칙유, 교육칙어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 이러한 시각에서 황국사관의 문제가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국민 만들기과 어떻게 연속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46년 3월에 내일한 미국교육사절단은 일본의 교육현실을 시찰한 이후 4월에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 보고’를 제출하였다. 보고서가 제기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편집방침은 전전의 국체개념을 중시한 국가주의, 침략주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다수 국민의 역사, 세계 여러 나라와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서 상호 교류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역사교육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교과서가 『나라의 발자취』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고대사 분야에서 신화적인 존재인 진무천황을 일본의 초대천황이라고 서술하는 등 여전히 황실중심주의적인 내용이 존재했으며 전쟁책임을 군부에게 한정하거나 사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발자취』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는데 주된 내용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전 역사교육에서 황국사관이 담당하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후의 변혁 혹은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후 진보적 역사학계의 중심적인 과제는 황국사관 비판과 전후 변혁에 복무할 수 있는 주체형성이 가능한 역사학이었다.

이시모다는 『중세적 세계의 형성』을 통해 메이지 유신 이후 형성된 일본적 고대세계 즉 천황이 중심이 된 전제국가 체제의 타파야말로 전후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고대세계를 타파하고 중세시대를 연 이들 변혁의 주체인 무사(= 지식인)들은 장민(=민중)들과 괴리되면서 고대적 지배질서를 대표하는 동대사에게 패하였다고 이시모다는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는 전후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연합군의 지배라는 외부의 정복에 의해 일본의 지배체제가 일시적으로 개혁되었다고 하더라도 혁신세력이 민중들에게서 고립되어 있다면 천황제는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이시모다의 현실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는 민중에게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민과의 역사부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역사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변혁의 토대로 ‘역사와 민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본의 변혁과제가 선 민족해방 후 민주혁명이란 전술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시모다는 민족해방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를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으로 정의하였다. 즉 이시모다는 상층 지배계급을 제외하고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민 일반을 동일한 역사적 기억을 갖는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 집단인 민족으로 치환해버렸다.

황국사관 비판과 전후 변혁을 위한 주체형성을 지향한 이시모다는 내셔널리즘에 기초하여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국민 만들기를 시도한 문부성의 역사교육 방침과 겹치는 측면을 가진다. 이러한 역사교육을 받은 세대는 결국 변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체제 내부로 흡수되어 버린다.

• 참고문헌

<자료>

- 文部省, 「国史教育の方針」, 1945년 9월.
文部省, 「国史教育の方針(案)」, 1945년 11월 17일.
文部省, 「国史授業指導要項について」, 1946년 11월 9일.
文部省次官, 「国史の授業再開に付て」, 1946년 10월 19일.
文部省, 「新国史教科書について」, 1946년 10월 19일.
上田薫編, 『社会科教育史資料』 1, 東京法令出版, 1974.

<연구논저>

- 박진우, 「전후일본의 역사인식과 ‘황국사관’」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251~322쪽.
최종길,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의 한반도 인식」, 『일본역사연구』 35집,
2012, 159~193쪽.
최종길,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민족 담론」, 『일본학』 37집, 2013, 161~
201쪽.
石母田正, 『中世的世界の形成』 제16판, 東京大学出版会, 1984.
井上清, 『くこのあゆみ批判』, 解放社, 1947.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Ⅱ)」,
『鹿児島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第47巻, 1995, 1~22쪽.
梅野正信, 「社会科成立期における歴史教育書の作成と4つの歴史教育(Ⅲ)」,
『鹿児島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第49巻, 1997, 1~25쪽.
梅野正信, 『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研究』, 日本図書センター, 2004.
大久保佑香里, 「1946-55年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戦争の認識と記述」, 『三田

- 学会雑誌』108巻1号, 2015, 149~172页.
-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新曜社, 2002.
- 海後宗臣, 『歴史教育の歴史』, 東京大学出版会, 1969.
- 角田将士, 「戦後初期歴史教科書『くにのあゆみ』における歴史認識形成の論理」『社会科教育論』第47号, 2010, 13~22页.
- 片上宗二, 『日本社会科成立史研究』, 風間書房, 1993.
- 加藤章, 「社会科」の成立と「国史」の存続, 『長崎大学教育学部教育学科研究報告』第25号, 1978, 49~64页.
- 加藤章, 『講座歴史教育』, 弘文社, 1982.
- 兼重宗和, 「占領下における日本史教育」, 『徳山大学論叢』第26号, 1986, 127~150页.
- 昆野伸幸, 『近代日本の国体論—<皇国史観>再考』, ベリかん社, 2008.
- 千本秀樹, 『天皇制の戦争責任と戦後責任』, 青木書店, 1990.
- 長谷川亮一, 『「皇国史観」という問題』, 白澤社, 2008.
- 永原慶二, 『皇国史観』, 岩波書店, 1983.
- 丸山国雄, 『新国史の教育—くにのあゆみについて—』, 惇信堂, 1947.

Reorganization of Japanese Emperor's historical perspective and intellectuals in postwar Japan

Choi, Jonggil*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criticism of Japanese Emperor's historical perspective has continuities with the creation of a new nation in postwar Japan. The historical textbooks based on the newly proposed standards are *The History of the Country*. However, this textbook still contains issues such as the imperial family-centered contents and the limitation of shifting war responsibility to the military. In this regard, criticism was rai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ormation of a subject capable of serving in the injustice of the emperor and in the postwar reform. Ishimoda Sho judged that the emperor system would be resurrected if the revolutionary power is isolated from the people even though the empire-centered regime was reformed in the new post-war political environment. The logic of Ishimoda Sho overlaps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which tried to create a new people based on nationalism.

*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Key words: Emperor's historical perspective, the national polity,
intellectuals, Ishimoda Sho, *The History of the Country*,
The Formation of a Medieval World

필자 E-Mail: gilchoi67@hanmail.net

투고일: 2017년 07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7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7월 28일